



소요시간과 주의사항

환자 분에 따라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반까지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사하는 날은 넉넉히 시간을 두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들으면서 하는 검사가 많기 때문에 평소 보청기나 돋보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오시고, 든든히 식사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자를 가장 잘 알고 가까이에서 모신 보호자 분이 환자와 동반해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환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시는 길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 02) 970-8312

을지대학교병원 | 042) 611-3441

홈페이지 | www.emc.ac.kr

통합콜센터 1899-0001

예약상담시간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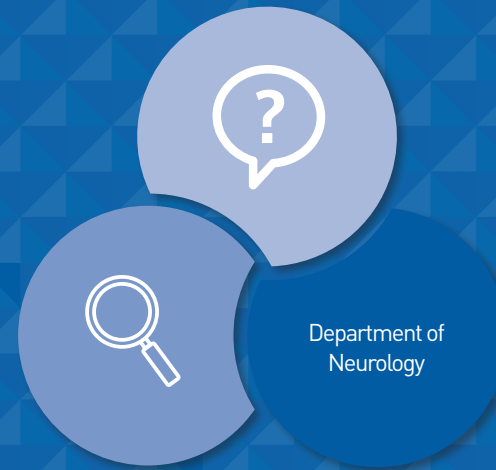
EMC 을지대학교의료원 을지재단

을지대학교(대전캠퍼스) |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 | 을지대학교병원 |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 범석학술장학재단 |
 을지인력개발원 | 을지생명과학연구소 | 을지재단빌딩

을지재단 Since 1956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내서

신경과 인지 기능 검사



EMC 을지대학교의료원



인지 기능 검사란?

나이 50대와 20대를 100m 누가 빨리 달리는지 시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겠지요? 인지 기능 검사는 나이나 교육 정도를 보정하여 기억력, 시공간능력, 언어능력, 집행기능, 주의집중력 등의 인지기능에 손상이 있는지에 대해 문답으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어떤 종류의 인지기능에 주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그 중증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마다 평가하여 변화 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경과 인지 기능 장애 (치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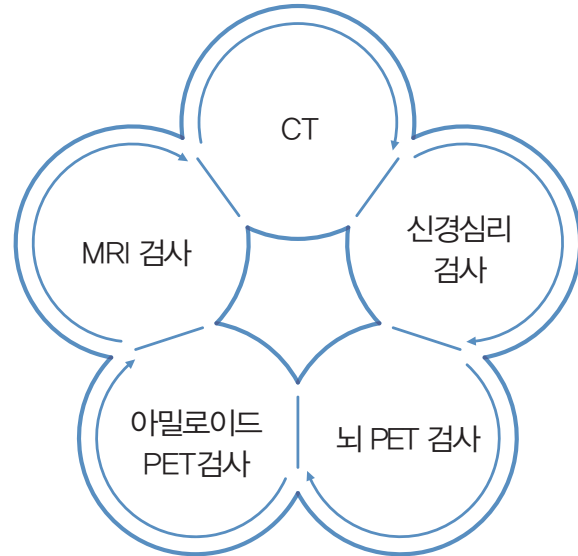
나이가 들면서 피부, 팔, 다리 힘뿐만 아니라 뇌세포에도 변화가 오고,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노화와는 달리 뇌 안에 이상 단백질이 침착한다든지, 뇌경색, 뇌출혈, 또는 알코올 중독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뇌 인지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뇌인지문제 클리닉은 이에 대한 진료를 보는 곳입니다.

기억력 장애로는 물건을 어디 두고 못 찾거나, 중요한 약속을 잊거나, 한 일을 잊어버리는 일 등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야기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다든지, 단어의 의미를 상실한다든지, 길을 잘 찾지 못하거나, 도구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도 기억력 장애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억력 장애는 아닙니다. 또한 기억력만 문제 있는 경우도 있고 더불어서 길 찾기 문제, 계산문제, 성격 변화 등을 동반하거나 행동이 느려지고, 걸음걸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넘어지는 증세, 삼킴장애 등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장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검사

인지장애는 뇌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뇌의 구조적 변화를 볼 수 있는 CT나 MRI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뇌의 기능적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신경심리검사나 뇌 PET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뇌의 이상단백질 침착을 볼 수 있는 아밀로이드 PET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인지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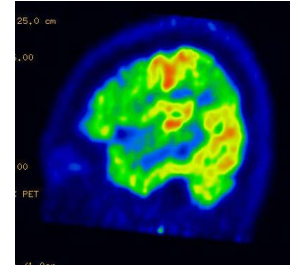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들과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거나 폐렴이나 요로감염으로 인해 열이 날 때, 과도한 수면제를 복용할 때, 저혈당이나 고혈당,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겼을 때는 갑작스럽게 인지장애를 일으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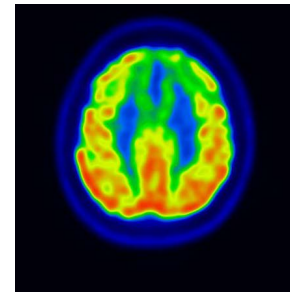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루이체 치매, 파킨슨병 치매, 전두측두 치매 등이 있는데, 이들은 질환에 따라 특별한 임상 증세와 더불어 수 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발생시간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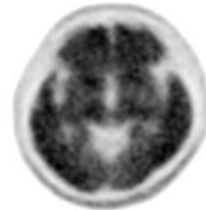
인지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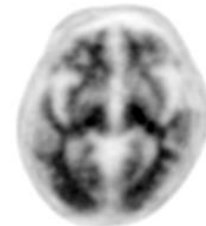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된 58세 여자 환자. 머리 옆모습으로 손, 발의 움직임, 보고, 듣기에 관련된 뇌 구조는 붉게 활성화되어 있으나, 기억하기, 길 찾기, 판단하기와 관련된 뇌 부위는 연두색으로 뇌대사 저하를 보임.



전두측두 치매로 진단된 76세 여자 환자의 FDG-PET. 가로영상(axial image)에서 뇌 앞쪽의 대사가 연두색으로 저하되어 있음.



56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71세의 전두측두 치매 환자